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회의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당과 국가의 당면 사업과 중요정책문제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1월 19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제8기 제6차회의를 소집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시었다.

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었다.

정치국회의는 먼저 위대한 수령님 탄생 110돐과 위대한 장군님 탄생 80돐을 성대히 경축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뜻깊은 올해의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가장 경사스럽고 의의있게 맞이하는것은 수령님의 후손,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의 마땅한 의무이고 도덕의리이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 투쟁해온 우리 인민의 더없는 영광이고 긍지이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력사적인 올해의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개척하고 이끌어 오신 주체혁명위업을 조선로동당의 령도 따라 끝까지 계승완성하려는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을 더욱 억척같이 다지고 주체110년대를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는 승리자의 년대로 빛내이려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드높은 열의와 혁명적기상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중요한 정치적계기로 되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되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위대한 수령님 탄생 110돐과 위대한 장군님 탄생 80돐을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승리와 영광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하기 위한 조선로동당과 국가기관들의 임무를 상세하게 포치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80돐을 성대히 경축할데 대하여》가 채택되었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다음으로 현 조선반도주변정세와 일련의 국제문제들에

대한 분석보고를 청취하고 금후 대미 대응방향을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최근 미국이 우리 국가의 정당한 주권행사를 부당하게 걸고들면서 무분별하게 책동하고있는데 대한 자료가 통보되었다.

미국은 조미수뇌회담이후 최근년간에 만도 저들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합동 군사연습을 수백차례나 벌였으며 각종 전략무기시험들을 진행하는 한편 첨단군사공격수단들을 남조선에 반입하고 핵전략무기들을 조선반도주변지역에 들이밀면서 우리 국가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

하였다.

또한 우리 국가를 악랄하게 중상 모독하면서 무려 20여차의 단독제체 조치를 취하는 망동을 자행하였으며 특히 현 미행정부는 우리의 자위권을 거세하기 위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제반 사실은 미제국주의라는 적대적질체가 존재하는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라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이후 우리가 조선반도정세완화

의 대국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울인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군사적위협이 더이상 묵과할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미제국주의와의 장기적인 대결에 보다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인정하면서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결론하였다.

정치국회의는 미국의 날로 우심해지고있는 대조선적대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수단들을 지체없이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과업들을 재포치하였으며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재고하고 잠정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데 대한 지시를 해당부문에 포치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 채택된 해당 결정은 혁명발전의 절실한 요구와 조성된 현정세하에서 우리 국가의 존립과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시기적절하고 정당한 조치로 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회의는 주체의 영명한 태양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거룩한 영상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고 이 땅우에 자주적이며 존엄높은 강대국을 기어이 건설하려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의지와 불굴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본사기자

조국통일 3대원칙을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으로 빛내여주시어

한평생 평양에 유익을 위하여

(2)

우리 겨레가 조국통일의 대업을 성취하자면 통일에로 가는 길, 통일원칙을 바로 정해야 한다. 올바른 통일원칙이 있어야 그 어떤 폭력이 있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통일을 향해 끝바로 나아갈수 있다.

천리해안의 예지로 이 통일의 리치를 꿰뚫어보시고 이미 오래전에 겨레에게 조국통일의 가장 올바른 원칙을 마련하여 안겨주신분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이시었다.

주체61(1972)년 5월 북남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남측대표를 만나주시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자신께서 오래전부터 구상하고 하나하나 품들어 완성하여오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대해서 한조항한 조항 사리정연하게 밝혀주시었다. 너무도 공명정대한 통일원칙이기에 남측대표도 전적인 공감과 지지를 표시하였다.

이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 내용으로 하여 후날 평양과 서울에서 력사적인 7.4공동성명이 동시에 발표되게 되었다.

공동성명이 발표되자 삼천리는 통일환희로 끓어번졌으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 국제기구들에서도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공동성명에 서명하지 24시간도 못되어 《대화없는 남북대결에서 대화없는 남북대결의 시대로 옮겨가고있다》, 《모든 국민이 지나친 분노나 흥분을 가라앉히고 령철

한 리성을 되찾아야 한다》, 《이 몇장자의 성명에 우리의 운명을 점칠수 없으며 또 믿을수도 없다》고 하면서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여나섰다. 그리고는 《한국에 있는 유엔군은 외세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남조선강점 미군의 장기주둔과 실력배양을 떠들며 군사분계선일대에서 각종 군사연습을 편이러 벌려놓았다. 또한 공동성명을 지지하는 야당세력에 대하여서도 정치적압력을 가하였고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계속 억압하였으며 어용선전수단들을 동원하여 공화국을 비방중상하는 선전감싸이아를 련일 벌리었다.

이러한 복잡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던 때인 주체 61(1972)년 7월 14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인물들과 한 담화 《조국통일3대원

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되》에서 반동일세력의 음흉한 속심과 기도를 밝히 놓으시면서 앞으로 조국통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는것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담화에서 조국통일3대원칙은 우리 민족의 통일년원과 의지를 집대성한 가장 정당한 통일강령이며 민족공동의 통일현장이라고, 우리 인민은 뚜렷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었다고, 조국통일3대원칙이야말로 통일과 분렬, 예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조국통일3대원칙이 마련됨으로써 우리는 남북대화를 옳은 방향에서 이끌어나갈수

있는 확고한 기초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 원칙을 가지고 통일의 길을 넓혀나갈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자주적 기치를 높이 들고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 투쟁할데 대해서와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이 터질수 있는 근원을 없애기 위한 실제적조치를 취하며 사상과 정견, 신앙과 당파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두 한데 뭉치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파쇼악법들을 없애야 한다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조국통일3대원칙의 정당성과 진리성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기에 조국통일3대원칙을 온 겨레가 항구적

으로 틀어쥐고나갈 불멸의 통일대강으로 내세워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던것이다.

조선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둘로 갈라져서는 살수 없는 유기체와 같다고 하시면서 조국통일3대원칙을 불멸의 기치로 높이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해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명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통일의 대강, 민족공동의 통일현장으로 높이 내세워주신 조국통일3대원칙이 앞길을 밝혀주고있기에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은 정확한 라침판을 가지고 목적지향성 있게, 신심드높이 전진해올수 있었다. 불멸의 통일대강과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도 울려나왔고 력사적인 6.15공동선언, 10.4선언도 태어날수 있었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찌기 조국통일3대원칙을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으로 빛내 주신것은 조국통일을 위해 쌓으신 또 하나의 커다란 공적으로 된다.

최성일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역사적로정

조국해방 50돐 민족통일대축전

사대야 어찌이것이 평범이

조국 통일은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 것만큼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나가야 할 역사적책임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민족의 모든 성원들이 민족자주의 의식으로 든든히 무장하고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반대배격하는 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은 민족의 모든 성원들이 투철한 자주주의로 무장하고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설 때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할수 있지만 큰 나라를 맹목적으로 섬기고 남의 힘만 믿다가는 나라와 민족이 망하고한다는 길

은 뜻이 담겨져있다.

민족자주의식이 민족을 강하게 하고 나라를 흥하게 하는 사상적합이라면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은 민족을 비굴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상적독소이다.

사대와 외세의존이 망국의 길이라는것은 민족수난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뼈아프게 체험한 심각한 교훈이다.

우리 나라가 지난 세계초일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되게 된것은 봉건통치배들이 자기 민족의 힘을 믿지 않고 큰 나라를 섬기고 숭배하면서 사대주의를 하였기때문이다.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은 외세의 침략행위로 하여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이르는 때에조차 자책로 힘을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제각기 큰 나라를 등 돌리고 당파싸움만을 일삼았다. 그러다나니 나라의 왕궁도 어느 파벌이 득세하는가에 따라 외국군대가 번갈아가며 지키는 판국이 되었고 국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 쇠퇴해졌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는 봉건통치배들의 사대매국책으로 하여 우리나라는 결국 일제에게 먹히우고 조선민족은 40여년간이나 식민지노예살이를 강요당하게 되었던것이다.

망국적인 사대와 외세의존의 후과는 비단 이뿐이 아니다.

70여년의 기나긴 세월 우리 겨레가 아직도 민족분열의 고통속에 신음하고있는것도 중요하게는 외세에 빌붙어 동족대결만을 일삼는 사대매국세력의 책동과 적지 않게 관련되어있다.

송미사대주의에 빠진 남조선의 역대 집권자들은 미국

을 등에 업고 외세의 침략정책을 추종하여 반동일적인 매국배족행위를 감행하여 왔다.

지금 조선반도문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계속 복잡하게 번져지고있는것이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때문이라는것은 세계가 공인하고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각에도 남조선당국은 남의 눈치를 보면서 민족내부문제를 계속 외부에 돌리고다니며 구걸하는 추태를 부리고 있다.

오늘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념원이다.

지난해 남조선에서 반미자주화의 기치밑에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투쟁이 세차게 벌어졌지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새해에 들어와서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를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은 올해에도 진보력량을 총결집시켜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충강, 당국의 외세의존책동을 반대배격하는 다양한 활동을 적극 벌려나갈 의지를 표명하고있다.

지나온 력사와 오늘의 현실은 사대와 외세의존은 분열의 길, 망국의 길이며 오직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투쟁해나갈 때만이 평화와 통일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온 겨레는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해치는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굳게 단결하여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어나가야 한다.

본사기자 박철남

1995년은 조국해방 50돐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였으며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어 나라의 통일을 기어이 이룩할 운 겨레의 통일지기가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된 해였다.

이해에 공화국정부는 조국해방 50돐 민족통일대축전을 열대 대한 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주제84(1995)년 1월 1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해당 부문의 책임일꾼들을 가까이 부르시어 아버지수령님의 통일유훈을 하루빨리 실현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는데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하겠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1월 2일과 1월 4일에도 일꾼들에게 조국통일과 관련한 과업을 제시하시면서 조국해방 50돐이 되는 1995년에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으며 그로부터 며칠후인 1월 11일 또다시 조국해방 50돐을 계기로 전 민족적범위에서 거족적인 통일운동을 벌려나갈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이리하여 1월 24일 평양에서는 공화국 정당, 단체인합회의가 열렸다.

연합회에서는 조국해방 50돐을 맞으며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어나가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고 8.15를 계기로 관민족에서 대민족회의를 열어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를 협의확정할데 대한 제안을 담은 호소문을 채택발표하였다.

공화국 정당, 단체인합회의의 호소는 해외동포들속에

서 적극적인 지지와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공화국 정당, 단체인합회의의 호소문이 나가고 8.15통일대축전에 대한 온 겨레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3월 7일에 열린 공화국 정당, 단체인합회의에서는 조국해방 50돐 민족통일대축전을 성사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주관해나갈 비상설조직으로서 《조국해방 50돐 민족통일대축전 북측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해에 호응하여 남조선에서는 여러 통일운동단체들과 개별적인사들에 의해 4월 22일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해외동포들도 6월 20일에 《조국해방 50돐 민족통일대축전 해외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7월 11일부터 15일사이에 중국의 베이징에서는 조국해방 50돐 민족통일대축전 북, 남, 해외준비위원회 대표들의 회담이 진행되고 공동합의문이 채택되었다.

7월 21일에 발표된 공동합의문에는 민족통일대축전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국해방 50돐 민족통일대축전 성과적으로 막을 올리게 되었다.

1995년 8월 13일 민족의 심장 백두산에서는 온 겨레의 통일지향과 의지를 안고 조국해방 50돐 민족통일대축전장으로 향하는 북과 남, 해외동포대표들의 장엄한 통일대행진이 시작되었다.

8월 14일에는 평양의 김일성경기장에서 10만여명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민족통일대축전행진대를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이날의 군중대회에서는 사신을 헤치고 달려온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 대표들도 참가하였다.

우리 민족의 강렬한 통일지향속에 맞이하게 되는 조국해방 50돐이 되는 8월 15일, 이날 민족분열의 상징으로 되어온 판문점은 민족의 대단결로 통일의 새 기치를 마련하려는 겨레의 통일열망으로 세차게 끓어번져갔다.

판문각 앞마당에서는 성대한 개막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이어 통일각에서 민족공동의 조국통일방도를 협의확정하기 위한 북, 남, 해외 정당, 단



통일을 불러

한 애국지사의 인생행로를 더듬으며 (2)

민족이 나아가갈 진로를 명철하게 밝혀주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빛나는 예지와 애국애족의 정신에 감복한 안재홍선생은 그이를 만나뵈고싶은 마음속충동을 누를수 없었다.

당시 남조선에서는 외세의 단독선거음모를 반대하여 일어난 제주도인민들의 4.3인민봉기의 확대로 급해맞은 미국이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모조리 죽이고 파괴하며 불태우는 《초토화작전》을 감행하면서 제주도의 산과 들을 인민들의 피로 물들이고있었다.

파괴하여 평소에는 종제로 속을 내비치지 않던 그였으나 극도로 유린하고 거세를 무참히 학살하면서 민정장관파위는 아무때나 차버릴수 있는 일시적인 리용물로 밖에 보지 않는 미국에 대한 울분을 더는 누를수 없었다.

미국은 《문명국》이 아니라 야만인의 나라이며 미군은 《해방자》, 《인조자》가 아니라 강점자였다.

미국의 정체를 바로 보게된 선생은 그때까지도 미국의 옷자락에 매달려있는 자신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을 느꼈다.

불에 대한 중오가 커갈수록 선생의 마음은 정의에 대한 동경으로 더욱 불타오르고있었다.

선생은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었고 아예 단 사람이 되어 돌아온 김구, 김구식선생을 만나 그들로부터 그이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넓은 도량과 한없이 겸허하고 소탈하신 인품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시종 흥분되는 마음을 견잡지 못하였다.

그러하여 선생은 공산주의자라고 하면 던져놓고 한부



안재홍선생

류에 놓고 질시하던 지난날의 편견을 버리고 주저없이 새로운 길을 택하였다.

그는 자기의 동료들과 벗들을 모아 선생회를 조직하고 그 회장으로서 김구, 김구식선생들이 조직한 통일촉진회의회와의 령계밑에 미군철거와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한 의로운 활동을 벌려나갔다.

선생회의 결성은 안재홍선생이 어지러운 과거와 인연을 끊고 민족적정신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실천행동이었으며 인생말년이나마 애국과 정의의 위대한 길에서 값있게 살아가려는 그의 굳은 결의의 표시이기도 하였다.

련공련북이 애국의 길임을 확신한 그였기에 외세에 의해 강요된 지난 전쟁시기 서해해방을 꾀동속에서 맞이하였으며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정치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영웅한 조선인군 부대들의 승전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선생은 민족의 힘을 천백배로 키워주시 위대한 수령님을 따르는 길에 조선의 양양한 앞날이 있다는 신념을 더욱 가슴깊이 간직하였다.

하기에 선생은 전략적인 일시적후회의 준엄한 나날에 사소한 마음의 동요도 없이 북행길에 오를 단호한 결심을 내리셨던것이다.

늙은이가 어떻게 먼길을 가겠는가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김일성장군님을 따르는 길에 겁이없음이라야 되겠소.』

주시고나서 여직껏 여러분들을 한번 만나보지 못하였는데 오늘은 흥금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시며 남조선의 정치체제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교시하시었다.

이어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오찬을 베푸시고 안재홍선생에게 많이 들라고 손수 음식까지 권하시었다.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는 몇몇 잊지 못한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날이 갈수록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에 선생은 뜨거운것을 삼키었다.

후날 선생은 그때를 회상하여 이렇게 썼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 자신도 《손잡기 곤난하다》고 생각한 사람까지 다 포섭하고 같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나는 자신이 협소하고 옹졸한 견해를 가지고있는데 대하여 심각한 자책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아버지수령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는 그이께서 조국과 민족을 얼마나 열렬히 사랑하시며 사람들을 아끼시는가 하는것을 깊이깊이 깨달을수 있었다.

나는 그날의 감격을 영원히 잊을수 없다.』

본사기자

통일교실

하나의 조선훈

우리 민족은 삼천리금수강산에서 반만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화랑정신을 이으며 살아온 하나의 민족이다.

삼천리강토가 두동강이나 70여년의 긴긴 세월 북과 남으로 갈라져있는것은 철저히 외세가 강요한것이지 결코 우리 겨레가 바란것이 아니다. 다 알고있었지만 공화국은 시종 분열로선을 반대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로선을 견지해왔다.

때문에 공화국을 바로 리해하는데서 이에 대해 잘 아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한 공화국정부의 로선을 한마디로 특징짓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조선훈, 통일로선이다.

이것은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자주의 사업으로 내세워온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로선이다.

하나의 조선훈, 통일로선은 나라와 민족의 완

전한 자주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철저한 민족자주의 로선이며 통일조국의 부강발전을 전민족의 통일번영을 위한 참다운 애국애족의 로선이다.

공화국은 북남이 대결하고 충돌하는것을 바라지 않으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것을 지향하고있다.

해방직후의 복잡다단한 정치정세속에서 북과 남의 거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폭넓은 민족대회합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가 마련되고 이 회합에서 사대매국세력의 민족분열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인 애국투쟁을 벌릴데 대해 일치한 합의를 이룩한것은 공화국의 자주적인 조국통일로선, 하나의 조선훈의 빛나는 결실이었다.

그 이후에도 공화국은 온 겨레의 절절한 통일념원과 지향을 반영하여 조국통일

을 자주적으로,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많은 합리적인 통일방안과 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공화국은 1970년대에 격페상태에 있던 북과 남사이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고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가 천명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을 채택하게 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융납하는 기초우에서 나라의 통일을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기본방도가 밝혀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이 제시되게 하였다. 내외분열주의자들의 무분별한 반공화국소동으로 말미암아 조국

과 민족애에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었던 1990년대에 조국통일을 위한 전진적대단결10대강령이 발표된것도 공화국의 애국애족의 통일로선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새 세기에 들어와 북남사이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북남공동선언들이 려이 채택될수 있었것 역시 민족의 화해와 단합으로 하루빨리 통일된 조국을 안아오려는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자주통일로선, 하나의 조선훈의 거대한 생활력의 뚜렷한 증시로 된다.

외세가 강요한 분열의 비극을 갈장내고 하루빨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온 겨레의 강렬한 지향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다.

조선은 하나이며 우리 민족은 하나의 조선훈, 조국의 자주적통일방침에 따라 반드시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겨오야할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민족적차별과 적대행위를 규탄하는 재일동포들의 투쟁

모들과 일본시민, 해외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알려진것과 같이 지난해 8월에 교토부 우토로지역에서 일어난 방화사건은 재일동포들의 인권과 생활권, 생명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일본우익강력들의 반인륜적 소실되었다.

하기에 일본내에서는 물론 남조선과 국제사회에서 재일동포들을 파닉으로 삼고 감행되는 치명적인 범죄행위를 단죄규탄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이 교토시

내에서 《우토로에서의 방화사건을 용납하지 않는다! 차별행위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시민집회》가 열리었다 한다.

집회에서는 총련일꾼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발언이 있었으며 호소문이 채택

되었다.

발언자들은 《범인에게 재일동포들에 대한 중오와 력사기록을 없애버리려는 동기가 있었다면 매우 악질적인 범죄행위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사건이 두번다시 벌어지지 않는 사회를 후대들에게 물려주자고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인민의 보금자리들을 보며

2022년을 앞둔 지난 해 12월 30일과 31일 공화국의 걸터지구에 새집들이경사가 펼쳐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금골1동, 금골2동, 금골3동, 대흥2동, 백금산동, 탐사동의 깊은 협곡을 따라 단층, 소층, 다층, 고층, 다락식살림집들이 조화를 이루며 준비하게 솟아난 모습은 그대로 선경이 변형하는 새시대의 선경이었다.

이날 평안도시가 들쭉하게 흥겨운 춤판이 펼쳐졌고 집집마다에서는 행복의 웃음소리가 넘쳐났다.

단천시 금골1동에 새집들이한 간혜영녀성은 《삼지연시에 펼쳐진 인민의 리상향을 보면서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에게도 이런 꿈같은 행복이 차례였습니다.》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적덕광업연합기업소 금골광산 4.5층 로동자 최성민은 《인민이 주인으로 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있어 우리 광부들이 영웅으로 떠날 때를 기다리며 오늘 이렇게 궁결같은 새집을 받아안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광물을 생산해내겠습니다.》라고 결의하였다.

걸터지구에서 솟아난 새 선경은 공화국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조선로동당이 펼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참모습으로, 영원한 만복의 화폭으로 새겨졌다.

어찌 걸터뿐이랴. 평양의 명당자리에 평범한 인민들이 살게 될 주택구인 《경루동》이 아름다운 구슬다락과 같은 자태를 드러냈고 송진, 송화지구에서 1만세대 건설이 기본적으로 결속되어 또 하나의 건축대군에 이르렀으며 삼지연시가 문명한 산간도시의 전형으로 탈바꿈되었다.

그뿐이 아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한도 평양의 중심부에 현대적인 창건거리가 번듯하게 일떠서고 미래과학

자거리, 려명거리가 솟아나 근로자들에게 기쁨을 더해 주었다.

은 나라 방방곡곡이 사회주의선경으로 변모되어가고 자연의 재물이 휩쓸었던 은과군 대청리, 금천군 강북리를 비롯한 여러 지역이 행복의 보금자리로 전변된것은 언제나 인민을 제일로 위해주는 공화국에서만 있을수 있는 현실이다.

하기에 공화국인민들은 영원한 행복의 보금자리인 사회주의조국을 위해 자기의 땀과 열정, 애국의 뜨거운 피를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구상에는 보금자리가 없어 한지에서 생활하고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몇해전 어느 한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집이 없어 여기저기를 방랑하던 사람들이 거리에서 얼어죽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새들도 추위를 막아줄 제

등지가 있건만 이 나라 사람들은 제몸 하나 건사할 겨우지 없어 다리밑이나 주차장을 헤매다가 얼어죽지 않으면 안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막힌 현실인가.

공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나라에서 떠돌이생활을 하고있는 사람들은 수십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이 나라의 어느 한 사회활동가가 근로대중의 살림집문제해결에 전혀 눈을 돌리지 않고있는 당국에 대한 항거의 표시로 려명수심사나 되는 강주위에서 새날이 밝도록 집없는 사람들에게 대한 사회적보호를 호소하였는가.

이것은 비단 이 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남조선도 마찬가지이다.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에서는 2021년 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전 지역의 아파트값이 13.11%나 뛰어들어 2020년(6.43%)의 2배를 넘었다고 한다. 거기에

다 전세와 월세까지 급격히 올라 주민들의 원성은 날로 높아만 가고있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치솟아오른 부동산은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간극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다. 부동산투기라는 사회적각축에 참가하지 못한이들은 도시심에서 번두리로 밀려났고 서울에서 주변지역으로 쫓겨갔다. 재개발과 철거의 폭력으로 하여 이들은 지하로 숨어들고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있는것이 이 땅의 현실이다.》고 지적하였다.

현실은 인민의 존엄과 행복, 참다운 삶을 보장하여주는 진정한 인민의 보금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본시기자 김춘경

쪼개진 집에 쪼그라드는 삶

남조선잡지 《주간경향》(2021년 12월 20일호)는 남조선에서의 열악한 주택환경에 대하여 이렇게 지적하였다.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가구의 절반가량(51.5%)이 아파트에서 산다. 나머지 절반은 빌라, 원룸 등으로 불리는 주택에 거주한다는 의미다.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80~90%가 지자체단속에서 불법으로 적발된다.

세상은 늘 아파트이야기로 시끄럽지만 법을 어기고 지은 다세대, 다가구주택에 《철반의》 사람이 살고있다.

다세대, 다가구주택밀집지역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면 지하주차장, 물탱크대신 지어진 집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수평으로는 칸막이를 쳐서 여러개로 쪼개고 수직으로는 층층이 더 많은 《집》이 만들어진다.

상가나 계단으로 허가받고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집은 더 늘어난다. 쪼개거나 층층이 더 많은 《집》이 만들어진다.

사람이 살고있다.

다세대, 다가구주택밀집지역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면 지하주차장, 물탱크대신 지어진 집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수평으로는 칸막이를 쳐서 여러개로 쪼개고 수직으로는 층층이 더 많은 《집》이 만들어진다.

상가나 계단으로 허가받고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집은 더 늘어난다. 쪼개거나 층층이 더 많은 《집》이 만들어진다.

사람이 살고있다.

다. 건축물대장을 보기 전까지 불법주택인지 가능하기 어렵다.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고 방을 쪼개거나 층층이는 리유는 돈이다. 세입자에게 더 많은 월세를 받거나 각종 규제를 줄이기 위해서다.

구축 다세대, 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쪼개기는 폭넓게 퍼져있다. 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대학가일대 건물물을 두차례에 걸쳐 조사했더니 쪼개진 집이 절반을 넘었다.

대학가에만 쪼개진 집이 만연한것은 아니다. 다세대, 다가구주택밀집지역일수록 쪼개진 주택비율이 높았다.

송파구의 한 다세대, 다가구주택밀집지역 21개 주택을 조사해봤더니 11곳이 쪼개진 집이었다. 원래는 6가구만 살아야 하지만 17개의 가사배판이 벽을 타고 내려오는 집, 허가는 의원으로 받아놓고 4개로 쪼개진 현판문 사이간격이 50cm인 집도 확인되었다.

쪼개지는 서울밖에서도 번

종을 거듭하며 진화한다. 직접 찾아가보지 않으면 찾기 어려운 쪼개기주택도 발견했다.

층간 공유의 부동산 3곳에 들렀는데 《세어하우스》로 불리는 집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화장실과 부엌은 공유하고 칸막이로 거실을 분리해 방으로 쓰는》 아파트였다. 약 34평크기에 7~8명이 살고있었다.

불법주택은 《싼 가격의 주택이 필요한이들에게 소구하는 기형적인 집》이다. 저렴한 주택이 필요한이들에게 대체제가 없다면 불법주택은 줄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대전》경선에서 《지, 육, 고(지하, 육담방, 고시원)를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을 때에도 《저렴주택이 필요한이들은 그럼 어디로 가야 하나?》는 비판이 따라붙었다. 단속강화만으로는 쪼개기, 용도변경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리유다.

본시기자



세계와 당당히 경쟁해간다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 빛전자연구소는 훌륭한 과학교육성과를 수없이 내놓은 것으로 하여 국내외의 관심을 끄는 실력있는 연구집단이다.

최근년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학술잡지들에 발표된 김일성종합대학의 논문들 중에서 물리학부가 많은 몫을 차지하고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권위있는 국제학술잡지들에 발표된 논문의 절반정도가 이곳 연구소에서 나왔다고 한다.

몇개 나라의 독점물로 되어있는 통신기술개발과 세계적수준의 레이저투영기술확립, 정밀측정기술개발과, 방사정보학부문의 연구성과들은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 빛전자연구소 연구사들의 피라는 정열과 사색의 산물이다.

이 연구소의 매 연구실과 연구조들은 다 자기 분야에서 무시할수 없는 권위를 지닌 학술중심의 연구집단이다.

지난 기간 연구소에서는 여러명의 20대박사와 40대의 교수수를 포함한 교수학직소유자들이 배출되었다.

연구소에는 2018년 국가최우수과학자, 기술자로 선정된

교수 박사 김남철실장도 있고 제14차 전국학원대회에서 토론하는 영예를 지닌 교수 박사 임성진실장도 있다. 연구소인원의 절반이상이 나라의 최고과학기술상인 2.16과학기술상을 수여받은 자라고도 하고있다.

4년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인명사전에 2018년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로 등록된 3명이 모두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나왔는데 그들중 2명이 바로 이 연구소에 있다.

연구소의 교원, 연구사들은 오늘날도 첨단과학의 요소를 접목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자신들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본시기자

사랑은 아름다운것이다. 그래서 어느 한 작가는 뜨거운 사랑, 진실한 사랑을 안고 사는 사람은 시인이 되고 작가가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 뜨겁고 진실한 사랑은 과연 어떤것인가. 이에 해답을 주는 충격적인 두 사실이 있다.

최근 남조선의 한 잡지에는 일명 《교제살인》이라는 새로운 범죄어와 함께 련관되었던 상대를 무참하게 살해한 한 청년의 범죄사실이 실려 사람들을 경악케 하였다.

그 청년이 련인을 살해한 동기는 처녀가 자기를 배반하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려고 하였기때문이라는 것이다.

일찍 보면 련인에 대한 지나친 사랑이 잔인성을 불러온듯싶다. 하지만 그 처녀가 돈이 많았다는 사실은 그 범죄사실이 단순한 배신

이와 거의 비슷한 시각에 공화국의 한 결혼식장에서는 만사물을 올린 류다른 결혼식이 있었다.

《처녀어머니》라고 불리는 한 처녀에게 장가를 가는 청년, 그 청년은 무한

히 행복한 미소를 담고 다소곳이 머리를 숙인 새색시의 손을 꼭 잡고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신랑신부를 부르는 청혼은 한 소녀의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처녀어머니》가 말하 키운 부모없는 아이였다.

어느 한 병원의 간호원으로 일하던 신부는 어느날 척추하반신마비로 수술을 받은 이 소녀를 맡아 간호하게 되었다.

은 병원의 지극한 성의와 방조속에 끝내 다시 대지를 활보하게 된 날 소녀는 처녀의 품에 걸이한 공화국의 한 청년의 모습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북과 남의 청년남녀를 통해 보는 두 제도, 여기서 사랑들은 그 사회의 미래도 함께 엿보는것이다.

김주경

사랑과 재부



그 청년이 련인을 살해한 동기는 처녀가 자기를 배반하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려고 하였기때문이라는 것이다.

일찍 보면 련인에 대한 지나친 사랑이 잔인성을 불러온듯싶다. 하지만 그 처녀가 돈이 많았다는 사실은 그 범죄사실이 단순한 배신

북녘의 교육현장을 가다

평양교원대학 (1)

지금도 때때로 어린시절을 추억할 때면 선생님이 들려주었던 하나의 이야기가 떠오르곤 한다.

한 바그다드상인이 깊은 밤에 홀몸으로 황량한 산길을 걸어가있었다. 산기슭에 이르렀을 때 어디선가 그에게 《발밑에서 돌맹이를 주어가지고 가라구. 려일 그대는 기뻐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할거요.》라고 하는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상인은 그 권고대로 돌맹이 몇개를 주어 호주머니에 넣고 계속 가던 길을 다그쳤다. 이튿날 호기심을 참지 못해 날이 밝자마자 돌을 하나 꺼내 들여다보던 그는 깜짝 놀랐다. 지금까지 본적이 없는 희한한 보석이었던것이다. 호주머니의것을 몽땅 꺼내보니 어느 하나 보석이 아닌것 없었다. 상인은 너무 기뻐 어쩔줄 몰라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인차 그때 너무 적게 주어진것이 후회되었다.

선생은 계속하여 이야기했다.

《이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지식은 바로 그런 보석과도

같은것이어서 어른이 된 후에 얻는 언젠나 적게 배운것을 후회하게 된다. 학생들도 바그다드의 상인이 되지도 말고 제때에 지식을 가득 채워나가야 합니다.》

선생의 이 말은 어린 나의 뇌리를 짝 채웠고 일생 지침이 되어 나를 각성시켰다. 대학을 졸업하던 날 나는 어린시절의 담임선생을 찾아가 즐겁게 그때 일을 회억했다. 머리에 백발이 엮은 너선생은 웃으면서 이야기했다.

《사실 그 말은 나의 말이 아니었다.》

《후에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로씨야과학자이며 노벨수상자인 바블로브스키의 말이라는것을. 하지만 선생님이 그때에 저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여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렇게 피라게 공부하지 못했을것입니다. 선생님이 제때에 그 말씀을 해주셨기때문에 제가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수 있었습니.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지금도 내가 거둔 성과들은 모두 그 선생이 제때에 학습열의를 가지도록 이

끌어주었기때문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그렇게 소학교시기는 아이들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할수 있으며 교원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씩은 배지우에 글을 써나가듯 아이들의 머리속에 차곡차곡 쌓이며 그것은 나아가서 일생 도음이 되는것이다.

몇해전 어느 나라에서는 대학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학교교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것인가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어린 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주인공교육, 부모의 과육으로 인한 공부강요가 자립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있는 문제때문이었다.

지금까지의 소학교교육은 발을 떠먹여주는 식의 교육으로서 자발적인 학습능력이 부족하며 다만 시험을 잘 치기 위한 요령만 익혀 교육시켜왔다는 의견이었다.

그런 결과 자립성과 적극성이 마비되어 수업중 모르는 것이 있어도 일어서서 질문을 하지 못하고있는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

지금도 어디서나 인재를

찾고 어디 가나 인재가 필요한 시대이다. 인재를 찾아내고 인재를 키우며 인재를 아끼고 인재를 내세우고 인재에 의거하여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하려는것이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의 공동의 념원으로 되고있다.

이런 인재에 대한 교육은 어릴적부터 시작되며 그들을 키우는 사람이 바로 소학교 교원이다.

사람은 지적두뇌가 발전하는 중요한 단계인 어린시절에 어떤 교원을 만나 어떻게 교육을 받게에 따라 현실을 보고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 달라진다. 기초가 든든하면 어떤 건물도 다 세울수 있는 것처럼 기초학력이 든든하면 두려울것이 없다. 이로부터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소학교교육자양성의 원동장인 교원대학을 잘 꾸리고 교원들의 실력을 높이는 문제가 중요하게 인식된다.

교원대학의 수준은 곧 소학교교육자의 수준이고 소학교교육자의 수준은 매개 학생의 수준으로 되며 학생의 수준은 나아가서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게 되는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2018년 4월에 찾은 평양교원대학에 대한 참관은 나에게 있어서 의미있는 일이었다.

재중동포 김영란

수필 농장벌에 울리는 발동소리

이러한 새 소식들을 읽어가는 나의 뇌리에 얼마전 취재지에서 인상깊게 들었던 이야기가 다시금 되새겨졌다.

그날 나는 지난해 다수확농민으로 된 황해북도 구천군 강북리의 여성작업반장을 찾아가었다.

거름을 실어나르는 트랙터르우에서 나를 맞이한 그 여성작업반장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저에게는 이 트랙터르의 발동소리가 단순한 기계의 동음소리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어려운 때 우리 농촌을 도와 영농자와 농기구까지 한가득 싣고 펼쳐나선 도시주민들의 적극적 지원이 있어 더욱 성수가 나고 올해의 알곡고지점령은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어렵

고 힘든 농장으로 자원진출하는 청년들과 지원자들을 태운 배스들, 영농물자를 실은 도시의 농촌지원차량행렬이 이 시각도 농촌으로 끊임없이 달려가고있다.

이 끝없이 흐르는 대오와 함께 농기계들의 발동소리가 울리는 형동발전야는 얼마나 박찬 모습을 펼쳐고있는가.

도시와 농촌이 한마음뜻이 되어 울려가는 사회주의 농촌의 힘찬 발동소리.

이것이야말로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건설강령에 이 땅 수천만인민이 하나되어 총성으로 화답하는 심장의 박동소리. 해마다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려는 공화국의 힘찬 숨결이 아니겠는가.

림광훈

이러한 새 소식들을 읽어가는 나의 뇌리에 얼마전 취재지에서 인상깊게 들었던 이야기가 다시금 되새겨졌다.

그날 나는 지난해 다수확농민으로 된 황해북도 구천군 강북리의 여성작업반장을 찾아가었다.

거름을 실어나르는 트랙터르우에서 나를 맞이한 그 여성작업반장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저에게는 이 트랙터르의 발동소리가 단순한 기계의 동음소리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어려운 때 우리 농촌을 도와 영농자와 농기구까지 한가득 싣고 펼쳐나선 도시주민들의 적극적 지원이 있어 더욱 성수가 나고 올해의 알곡고지점령은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어렵

시론

평화의 막뒤에서 전쟁의 칼을 간다

얼마전 남조선군부가 《국방개혁 2.0》 추진집결회의라는 것을 벌여놓았다고 한다.

회의에 참가한 군부우두머리들은 《국방개혁 2.0》에 제시된 목표를 87% 달성하였다고 자화자찬하면서 계속 박차를 가하겠다고 떠들어댔다.

화약내가 물결 풍기는 이번 모의 판은 명백히 동족대결, 전쟁대결을 더욱 가속화하고 완비하기 위한 무분별한 호전적망동이 아닐수 없다.

그 무슨 《전방위적인 안보위협 대응》과 《선진화된 군대육성》, 《한국형 3축타격체계》 구축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는 《국방개혁 2.0》은 표면상으로는 이른바 《정예강군》을 목표로 하고있지만 본

질에 있어서는 북침전쟁장비의 첨단화와 남조선군의 침략전투수행능력강화이다.

《적》후방에 대한 침투작전을 진행하는 《제2신속대용사단》의 능력강화와 산악려단의 전투력강화 등 이번 추진집결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그것을 실증해준다.

해군과 공군의 전력을 증강하고 확대개편하는 문제 등도 마찬가지이다. 남조선언론들은 2016년에는 해외 무기구매액이 1조원이었지만 2018년에는 4배가까이 올랐다고 하면서 현 당국의 군비증강은 이전 보수 《정권》시기를 통가한다고 전하였다.

그러면서 당국과 군부가 《강군》 문제를 광고하는것은 보수세력의 《안보위협》론을 의식한것이라고 보

도하였다.

단지 보수세력을 의식해서만이겠는가.

다른 한 언론은 남조선군의 무기체계와 군사전략은 이미 미국에 심각히 종속되어있다, 당국이 《자주 국방》을 표방하면서 굴종외교에 매달리고있다, 말로만 《평화》를 주장하고 뒤에서는 칼을 갈고있으니 남북관계가 진전될리 없다, 미국산 침략무기반입과 《한》반도평화는 절대 량립할수 없다는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평하였다.

《평화》의 간판을 들고 전쟁책동에 열을 올리는 남조선당국과 군부 호전세력의 이중적행태가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는 요인중의 하나라는것을 평한것이라고 본다.

실제적으로 남조선군이 외세와 야합하여 해내에서 침략전쟁연습에 광분하고있는것은 이미 그들이 조선반도에서의 침략전쟁의 하수인 노릇은 물론이고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실현의 전쟁대포박, 돌격대로 적국 나서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국방개혁 2.0》의 추진집결은 이해는 물론 앞으로도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외세의 전쟁머슴군으로 철저히 둔갑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모의판이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범 무서운줄 모르는 하루강아지의 무모한 객기에 불과하다.

정 필

지뢰발

유현의

난감한 그 처지 가급히 해야 할지 쟁쟁에는 그 행태 예처롭다 해야 할지 《국민의힘》 그 주위엔 온통 지뢰밭 피하지나 피할테가 있나 나가자나 발 디딜테가 있거나 하나

온갖 갈등으로 빚어진 혼란 이전 끝 《대선》 후보 당대표 손잡았는데 잘못한이 누구? 용서한이 누구? 그걸 끝내 누가 알아 화합은 했다지만 그 이유가 무언지 그러니 함강에서 말들도 많지 -수술가위 배속에 넣고 껌엔 화해!

그 《화합》 언체 돌변하여 소스라치게 리저버릴 지뢰가 되겠는지 그것뿐이면 오히려 숨이 나가려만 《공약》의 낚시로 아무리 낚으려해도 민심의 배척은 날로 커만 가고 그 열성으로 무성해진 여전히 《후보교체》론

난사는 난사로서 부지런히 뛰어봐도 뛰쳐나간 《책사》는 복귀 거부 한집안의 폐거리들마저 사과껍질 벗기듯 취임없이 후보의 살가죽 벗기려드니 허 이것도 피할길 없는 지뢰야인가

여기도 저기도 지뢰투성이 짜증나는 지뢰는 한둘이 아니야 보수라는 한눈에서 기생하는 처지이지만 한쪽에선 지지불상승 이라다 《국민의 당》에 먹이감 빼올라 기분잡치는 그것들도 역시 지뢰이구말구

사방 지뢰밭속에 든 운명 어쩔런지 그거야 대낮에 손바닥 들여다보듯 너무도 변한 리치가 아닌가 이게 《국민의힘》의 피할수 없는 숙명 지뢰에 산산조각난 《국민의힘》 종말이 그 열성으로 무성해진 여전히 《후보교체》론 보인다

증오는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는다

김영일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박근혜가 감옥에서 쓴 도서라지 독사는 죽게 돼도 독사라더니 반성이나 뉘우침은커녕 악녀의 추한 본색 달라지지 않았구나

뭐 재작기간 사심을 가진적 없더냐?! 누구에게 리친 쟁쟁추한 일 없더냐?! 그럼 덕행 쌓아 감옥행이었다나 국민 위해 할수 있는 일 있다면 무겁게 받아들여 할것이라고? 아니 그게 실성이나 로망이나

《억울함》을 토해내는데도 역스리운데 감옥에 처넣었다 석방을 반대했다 한때의 한집안 폐거리들에게 누구라도 대가를 치를것이라 새된 양갈질로 으뜸장 놓았으니 그것 참 악무사의 독기는 갈데 없구나

저지른 죄악은 전면거부 차례된 징벌은 억울하다 쟁쟁추는 풀 다 쇠진한 로마 들도 없는 악녀야 하다못해 꼬물꼬물 반성이라도 담아 이렇게 책제목 달아야 정상 아니겠느냐 《별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북망산이 기다리는 인생 다 산 주제에 무슨 정치판을 다시 기웃거리느냐 그렇게도 정치중독 털어내지 못했더냐 이따위 산송장에 《특별사면》 들판에 독땀 놓아주었으니 실로 경악 스텝다

독특히 알아뒤려 눈물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는다 고통과 불행에 당한 사람에게만 피같은 눈물이 생긴다는것을 증오와 분노도 생겨난다는것을

바로 너매문에 써지리게 당한 그 모든 아픔 채 아물지 못했는데 또다시 정치개입 헛꿈을 꾸는 박근혜 이제 다시 정치판에 치마바람 일으키면 그뎨 누구에게나 더는 참지 못할 격노가 뿜어져나오리라

감옥에서 벗어난 운명 다행히 여기고 조용히 죽음을 맞이할 차비나 해두는게 그중 현명한 여생의 선택이려니 감옥행에서 지옥행으로 지옥으로 가는 차표나 끊는게 어쩔런지

입 벌리지 말아

전명진

입만 열면 실언이다 《돈 없으면 불량식품을》 《주 120시간 로동》 《손로동은 아프리카에서나》 《장애인은 비정상인》...

사전에도 없고 참고서에서도 찾을수 없는 이 세계 인간들은 리해 못할 《첨단》사고의 《신조어》가 날마다 생산된다

입만 터지면 망언이다 《전두환이 정치 잘못다》 《민주화운동은 수입한것》 《녀성가족부패지》...

검사시절의 《갈잡이》 보수매당의 《저승사자》가 되어 자유, 민주, 인권을 란도질하려 녹솔대로 녹슨 독재의 칼을 버린다

폭언도 능사로서 개는 나는 죽죽 쫓는다더니 보수라는 오물통에 기여들자마자 대결악담에 전쟁독살이다

《남북군사분야협약서폐기》 《대북선제타격》 《북은 주적》...

천년속적은 《미래》라 섬기겠다는 강점자는 《동맹》이라 우상한다지 민족망신시키며 나불대지 말라 비굴한 사대굴종 보기도차 역경다

생동이는 익혀서라도 먹으려만 미련하고 어리석고 아둔한데다 부패하고 무식하고 무능한 정치생동이 윤석열

씩은 냄새 역하고 노는 꼴 더럽고 심통마저 늘부어서 누구나 피하더라 침을 뱉더라

입 벌리지 말라 윤석열 이 땅에선 살아 숨쉴 곳 없으니 입 싸취고 동면 못했거든 북망산에 코 틀어받고 잠자코 있어라

세치 혀가 긴 목을 감는다

바보에게는 침묵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있다. 《1일1방언》으로 자기의 무식과 무능을 남김없이 뽐내고있는 《국민의힘》의 윤석열에게 주는 충고이기도 하다.

남조선인민들이 평한것처럼 제 잘나서 아니라 현 정치에 대한 민심의 불만을 기회로 삼아 정계에 머리를 들이던 《반사제》에 불과한 윤석열이다.

그러다가 날마다 실언, 망언을 거듭하더니 이제는 간담이 가부었는지 가스통케도

《대북선제타격》이니, 《북은 주적》이니 하고 입에서 무엇이 나가든지도 분간 못하고 허바닥을 놀렸다고 한다. 동족과 한사과 전쟁을 해보셨다? 불안하고 간들간들 한 이 땅의 평화마저 완전 깨버리겠는가

지나해 군복까지 걸치고 분계연선지대를 싸다닐 때부러 정신이 온전치 못한자라고는 생각했지만 동족대결명병, 전쟁광증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력대 보수의 인물이라 나섰던자들도 감히 전쟁을 입

에 담지 못했었다. 군대밥도 먹어보지 못한자가 《대북선제타격》의 기열을 토하고있으니 이발도 안난 아이가 빠다기주렴을 하겠다고 설치는 꼴이다. 갈데가 없어 《국민의힘》에 기신기신 기여들어 친미 사대를 명줄로 삼고 동족대결에 기생하는 보수의 못된 생리부터 배운것같다. 제 허바닥을 놀려 쏘아낸 말이라도 내뱉은 말은 주어 담지 못하는 범이다. 아무리 외세에게 잘 보이 고 보수의 지지표를 끊어

모으려는 수작일지라도 상대가 누구인가를 가려보고 허바닥을 나불거려야 할것이다. 윤석열의 거저눈에는 공화국의 강위력한 자위적억제력이 그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것으로 보이고 전쟁이라는 말할 때를 아는자는 침묵 할 때를 안다고 했는데 윤석열이 자기의 악담에 대해 반성하고 입부리를 함부로 놀리지 말아야 할것이다. 세치 혀가 긴 목을 감는 법이다.

백영환

오물통에 쓰레기가 담긴것이 응당한것처럼 오물통에 인간쓰레기들이 모여드는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얼마전 떨어지는 지지물로 꼴머리를 앓는 《국민의힘》에 《우군》이 찾아들었다고 한다.

《대통령》선거후보라는 윤석열의 무능과 실언, 그 주변의 부정부패는 물론이고 심화되는 당내부갈등으로 여기저기서 불탄당하고 얻어맞아 된소나기 맞은 참새처럼 초췌해졌던 《국민의힘》이 환성을 올린 것은 두말할것 없다.

그 《우군》이라는게 누구들인가 하니 남조선사회에서도 우완거리로 배척받는 《탈북자》쓰레기들이다.

그런데도 저들을 지지한다고 해서 회색이 만연하여 인간쓰레기들과 그 무슨 《통합 및 후보지지

선언대회》라는 놀음까지 벌인것을 보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삼년가물에 쥐오줌만큼이나 반가웠던 모양이다.

량반은 물에 빠져도 개해염은 안친다고 했는데 그 무슨 《정통보수》를 운운하던것들이, 《보수대통합》을 한다고 북작대던것들이 고작 《탈북자》쓰레기들과 한이불속에 들게 되었으니 《국민의힘》의 값이 그 정도였던 모양이다.

아마 리속을 위해서는 벼룩의 간도 빼먹을 《국민의힘》것들이 무력하고 통합놀음을 벌리지는 않았을것이다.

주동이란 터지면 동족에 대한 혐담, 악담에 하는 것거리란 남조선인민들이 극력 반대하는 빠라살포 같은 못된짓만 골라하는 인간쓰레기들을 현 당국과 상대후보보를 공격하는 참새부리, 돌격대로 내세

《국민의힘》 역시 《오물정당》, 《부정부패당》, 《막말베설당》 등 추악한 오명으로 이름날리는데야. 그래서 남조선인심도 《국민의힘》과 《탈북자》쓰레기들의 역겨운 통합을 두고 신랄히 조소하고 비난하고있다. 오물통에 쓰레기가 더해졌다고 김정혁

요즘 남조선에서 윤석열의 처 김건희의 《7시간특취록》이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

《7시간특취록》은 어느 한 기자가 김건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나온 대화내용을 기록한것인데 거기에는 김건희의 개인가정사뿐 아니라 사회적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점들에 대한 발언들도 들어있다고 한다.

실례로 정치인들의 성추행문제, 《국민의힘》의 내부문제, 지어 자기들이 권력을 잡으면 누구는 무사치 못한다, 윤석열의 선거활동을 도와주면 1억원을 주겠다는 등으로...

한 녀성이 경망하게 내뱉은 소리가 아니라 야심찬 속심을 그대로 표출한것으로 하여 조선봉건시대의 《수렴정》을 방불케 한다고 여론들은 평하고있다.

남조선의 각계중도 박근혜-최순실추문사건을 떠올린다고 하고있다.

아무런 공적도 없는 일개 무당인 최순실이 권력자인 박근혜를 조종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국정을 통단한 특대형추문사건. 오죽했으면 당시 남조선인심이 박근혜 《정권》을 《현대판 수렴정》으로 움직이는 《허수아비정권》이라고 개탄했겠는가.

그런데 보수매당속에서 또다시 이러한 특대형사건이 재현되고있는것이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에서는 김건희와 그의 발언을 놓고 《갈길 잃은 《국민의힘》을 흡수한 제2의 최순실》, 《김건희관 국정통단재현》 등으로 비난조소하고있다.

이번에 공개된것은 《7시간특취록》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남조선언론 《서울의 소리》는 《7시간특취록》원본에 김건희가 《일반주민들은 바보》, 《내가 점을 좀 볼줄 아는데 우리가 청와대에 간다》, 《윤석열은 내가 거들어주어야 제대로 하는 바보이다》 등의 정 말 총적적인 발언들이 많다고 폭로하였다.

녀편네의 치마자락속에서 《부양》되는 윤석열, 그런자를 후보로 내세울수밖에 없는 《국민의힘》, 정말 가련하다고 해야 할것이다.

권력의 방저지를 써보지도 못하고 제2의 《503》이 될 윤석열과 《신적매》로 락 인되어 다시 음지에 기여들어 가게 된 《국민의힘》의 앞날을 예고하는 《7시간특취록》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정초부터 일어나는 수많은 사고들이 시사해주는것은

년초부터 남조선에서는 각종 사건사고들이 연발하고있다.

실례로 남조선공공의 전수기들이 비행도중 추락하거나 불시착륙한것, 서울에서 부산으로 달리던 열차가 탈선한것, 전라남도 앞바다에서 선박들이 충돌하여 배가 전복된것, 경기도에서 건설중에 있던 건물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한것, 전라남도 광주에서 건설중이던 건물의 외벽이 붕괴된것 등이다.

그로 인한 인명피해도 크다고 한다.

문제는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련이어나는 각종 사건사고들은 결코 우연이거나 그 누구의 실수에 의한것이 아니라 반인민적인 정치가 가져온 인재, 악재라는데 있다.

지나해에 일어난 허다한 산업재해만 놓고보아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평택항에서 일하던 청년이 300kg짜리 철판에 깔려 목숨을 잃고 울산조선소 선박탕크에서 일하던 로동자가 수심m아래로 떨어져 죽고 현대제철 당진제

철소 로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워 사망하는 등 지난해 남조선에서는 산업재해가 그칠새 없었다.

그러나 남조선의 현 당국은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대책을 세운다고 골잡이 위외했지만 그 식이 장식이었다.

독히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만든다고 소리는 요란했지만 이런저런 《조진》에 의해 1년동안 실행되지 못하였으며 《법》마저 건설업체나 기업들의 눈치를 보면서 조절하다니 《누대기법》으로 취급 받고있는 상태이다.

현 당국이 년초에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흰소리를 쳐왔지만 련발하는 사고는 사망들에게 불안과 당국과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분노만 더해주고있다.

《남조선은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발생률과 사망률에서 세계 1위이다》, 《해마다 2 000여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있는데 이것은 3시간에 1명정도가 각종 산업재해로 사망하는것으로 된다》, 《남조선이 《재해공화국》이



남조선에서 일어난 아파트붕괴사고현장



로동재해방지를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로동자들

연상시키는 《7시간특취록》 국정풍탄사건을

평양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백선행기념관

평양의 고색창연한 역사유적인 련광정의 길 건너편에는 품돌이 다듬은 화강석을 정성다해 쌓아올려 건설한 특색있는 건축물이 하나 있다. 백선행기념관이다.

시 보수개건되었는데 면적은 1 056㎡이고 3층으로 되어있습니다.》

불리운 그는 이후로 헛된 한 번 팔세이 남들이 꺼려하는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했다.

사용원이 왜놈들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백선행은 분개한 나머지 조선민족을 위한 공화당건설을 발기하고 공사부담을 혼자서 결어졌으며 그때로서는 엄청난 액수인 6만 5천여원을 아낌없이 내놓았었다.



백선행 (1848-1914) 기념비

매시있고 가벼운 《매봉산》 구두

공화국의 백화점, 상점들마다에서 《매봉산》 상표를 단 구두제품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며 발목을 잡는다.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판매원처서는 《매봉산》 구두를 사신분들은 모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서 원산지구두공장에서

외국남생이는 강원도 고성군 금천리에서 서식하는 거북이과 한 종이다. 금천리소재지에서 남동쪽으로 약 2km 떨어진 곳에 남생이살이러던 흑연늪이 있다.



주의해야 할 겨울철 얼굴홍조현상

수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얼굴홍조증이 생기게 된다.

사화 돌칸한증 (3) 그림 김윤일

사실 박주부는 오랜 편집업에 시달리는데다가 몇달전에 말에서 떨어진 일까지 있어서 그 어혈을 풀어보려고

짜에다 특별봉사까지 하겠다니 박주부는 두말없이 불룩한 배를 안은채 수건으로 상투를 꼭 덮어 둥이로 껌껌한 한증가마안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때 한증 한번에 값은 얼마인가?》 《바로 정한게 없소이다. 쌀떡이나 들고오는 사람도 있고 나무 한지게 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가 아차 실수하여 정신이라도 잃게 되면 그만에서 구운 계신체가 될수도 있고요. 또 여럿이 우스개소리를 하면서 앉았을때 머리를 건디기가 한결 험한데다 옷을 벗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들어가면 누가 누군지 알수 없으니 체면이 상할것 두 없소이다.

때에 도가니안으로 심부름드는 아이너석이 기어들어오더니 《박주부어른 어디 계시와요?》 하고 물었다.



(조선청년 손기정이 비스마르크언덕을 넘어 쟁취했던 마라손우승컵이 이 나라 인민에게 기쁨을 주었던가. 아니다. 유구한 민족의 역사와 문화, 말과 글 지어성과 이룸마져 빼앗겼던 우리 민족에게 차려진것은 치욕과 죽음뿐이었다. 오직 민족의 구세주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외세의 발골밑에서 꺼져가던 민족의 운명을 비로소 재생의 봄을 맞이했다.)

가서 중퇴당한 그는 《카프》에 들어가 예측적인 시작품을 써나갔다. 일제는 이것을 빌미로 여러 차례 그를 체포투옥하였다.

《조진청년 손기정이 비스마르크언덕을 넘어 쟁취했던 마라손우승컵이 이 나라 인민에게 기쁨을 주었던가. 아니다. 유구한 민족의 역사와 문화, 말과 글 지어성과 이룸마져 빼앗겼던 우리 민족에게 차려진것은 치욕과 죽음뿐이었다. 오직 민족의 구세주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외세의 발골밑에서 꺼져가던 민족의 운명을 비로소 재생의 봄을 맞이했다.》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화기에 애하고 다정다감하며 민족적정서가 넘치게, 주어진 생활환경에 맞게 생활을 자기식으로 꾸려왔다.

아래에 언손을 물어주었고 솜에서 밥을 뜬 다음에도 그것을 사발에 담아 식지 말라고 아래쪽에 놓아두었다.

눈과 관련한 대표적인 민속로서는 눈싸움과 눈사람만들기가 있었다.

우리 선조들의 겨울철생활풍습 몇가지

우리 선조들은 겨울은 응당 추워야 하고 눈이 많이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메추리적쇠구이는 갖가지 조미료에 재운 메추리를 꼬챙이에 꽂아 적외우에서 구운 요리이다.

메추리적쇠구이는 갖가지 조미료에 재운 메추리를 꼬챙이에 꽂아 적외우에서 구운 요리이다.

《남의것은 다 좋은출 아느냐?》

어느 마을에 남의 집 김치만 좋다고 하고 제 집 김치면 입에도 대지 않는 한 아이가 있었다.

가 김치를 담아가지고 나왔다. 《이웃집 김치다. 어서 먹어라.》

《어, 시원하다. 김치라는 것은 이래야 해요.》 《남의것은 다 좋으냐? 그럼 이 김치를 늘 얻어다 너에게 주지.》 《정말이요?》 《정말 아니구. 밥이나 많이 먹어라. 부엌에 뒤둑 가득 담겨놓았으니.》 《아니 그럼?...》